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소 속의 중성자에서 나오는 빛의 실체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신과 물질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질이 따로 있고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생명의 신과 사랑의 신, 즉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 속에 신의 생명이 약동하는 고로 신과 물질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마귀 욕에 갇혀 있는 고로 모든 만물이 썩고 있다.

오늘날 신이 된지도 모르면서, 신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신학박사들이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신의 정의를 물어 보면, 그들은 얼른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은 신이 안 보인다고 말하며, 신이란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신을 어떻게 가르치며, 모르는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며 모르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신이 무엇인지, 신의 정의를 논한 자가 무수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란 무엇인가? 신이라는 것이 영이요, 영이 마음이요, 마음이 생각인 고로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동물이라 해서 영적동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생각 자체가 영이라는 말이고, 생각 자체가 신이라는 뜻이다. 또한 영 자체가 마음인데, 마음은 바로 생명(잠언 4:23)이라고 했으니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바로 신이요 영인 것입니다.

전자가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

성경의 요한 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아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는데, 말씀은 빛이요 빛은 곧 성령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곧 신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으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신으로 지었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바로 가르쳐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도 온전한 과학이 아닌 병들어 있는 과학이 되었고, 온전한 신학을 논하는 자가 없었던 고로 칼-막스(K-Marx)와 같은 유물론주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없다는 유물론주의를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이 세상을 두 쪽으로 나누어 놓고 서로 죽이고 서로 살상을 일삼는 이런 불행한 세계를 만들어 지옥의 세계를 형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요, 영이 신인 고로,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하면, 원소 하나가 모여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소 속에는 핵과 중성자, 전자가 있으며 전자는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소 속에서 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과학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냥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도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엔 돌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핵과 중성자 속에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있는 고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성자의 빛이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이 어느 정도 빠르냐 하면 태양빛보다도 100억 배로 빠르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로는 측정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곧 에너지이고 힘인데 사람에게서도 열이 빠지면 힘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보고 물건을 쥐어보라고 해도 쥐지 못하는 것은 열이 없으니 힘이 없으며, 고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소 속의 중성자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

여기 나무가 서 있는 것도 살아 있기 때문이며, 집이 서 있는 것도 살아 있

우주 만물은 곧 신(神)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방사되는 물질로 말미암아 만물이 변한다. 사람에 의해 만물이 파멸되기도 하고 생상되기도 한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면 만물도 하나님이 된다



구세주 조희성님

기 때문입니다. 집이 죽어 있다면 서 있을 수가 없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인데, 이 세상 만물이 마귀의 신과 하나님의 신으로 병존하고 있는 고로 썩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마귀의 욕에 갇혀 있는 고로 시간이 흘러 감에 따라 만물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사용하는 물건은 썩지 않습니다. 의인의 몸에서는 생명의 신이 자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공기 자체가 신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신이니까 공기도 신입니다. 특히 산소 속에 하나님의 신의 함량이 가장 많다고 이 사람은 시간시간 논하고 있습니다. 산소 속에 하나님 신의 함량이 가장 많은 고로 죽을 사람을 계속 산소호흡을 시키면 죽지 않는 것

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신이 마귀 신이라는 말은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되면 독소물질이 나오는데, 그 독소물질인 마귀 영이 공중에 떠 있으니, 공중에 마귀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면, 다른 사람이 잡자면 방에서 잠을 자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죄 짓는 정도에 따라 그 독소물질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는 고로, 다른 집에서 후 잘못 자게 되면 그곳의 악한 세력에 오염됩니다. 그 사람이 사는 방에는 천장에도 벽에도 그 사람의 영의 물질이 묻어 있는데, 그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죽은 조상의

영을 흡수하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질은 산소 속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대기 중에 머물고 있다가 비가 오면 바다나 땅 위에 떨어져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방사되는 물질로 말미암아 만물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한 번 화를 내고 한 번 욕심을 부릴 때 그 사람 자신의 피가 썩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만물도 함께 썩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고 선하게 바뀔 때 그의 주변은 생명의 물질에 싸여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씨 좋은 농부가 밭을 갈면 무엇을 심어도 잘 된다고 하는 말이 미신이 아닌 분명한 과학입니다.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함은 하나님이 신인데 사람이 신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고 하였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신으로 꽉 찼다는 뜻이요 꽉 찼으니 하나님이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식이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고로 하나님의 영생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냥 아무런 노력없이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나의 상전처럼, 나의 하나님처럼 여길 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됩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영생체로 화한 의인이 되는 고로, 이 세상이 죽지 않는 세상으로 변하여 천국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위에 영생의 완성체인 이긴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육천년 만에 사망의 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만물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 영생의 물질로 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영생체로 화한 사람인 고로 이 사람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므로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파멸되기도 하고, 생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영생의 확신을 품을 때 영생의 몸으로 변하여 세상 만물도 영원토록 썩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성님의 설자리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전체를 기울여

소사 신앙촌에서는 마귀로 취급받아 발발일 곳이 없어서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 저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녔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다리 난간을 들어받아 개울로 나가떨어지는 등 위험한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어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다.

최수영 전도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여 그 기관은 부흥이 잘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요일 예배를 다녀갈 때면 정성을 들여 헌금하니 연봉대 주머니가 두둑한 것을 본 최수영 전도사도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아주 열성적으로 매달리는 줄을 아는 고로 많은 전도관 식구들이 아무리 '조 중위는 마귀'라는 소문이 돌려도 늘 받아주었던 것이다.

집과 가까운 제단이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 갈 수가 없었으므로 최수영 전도사가 있는 곳만 찾아 나가게 된 이 사람은 최수영 전도사와 밤을 새우며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향취방새가 나고 생수 연결이 되어 말할 수 없이 은혜스러웠다. 이 사람은 "최

전도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연결되어 너무 좋습니다. 최 전도사님께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가 봅니다." 하면서 최 전도사의 신앙을 높이면서 늘 자신의 은혜 체험은 숨기면서 지냈다.

그리고 영모님께서 심의 구조를 바쳤다는 설교 말씀에 이 사람은 심의 심조를 바치는 생활을 해야 도리라는 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매사에 애를 썼다. 그러므로 항상 돈이 없는 상태였으며 때로는 차비가 없어 걸어서 집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었다. 이 마음과 생명 모든 전체까지 여천만 번 기울이고 사는 상태였으므로 늘 빛으로 살아야 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해주시어 아무런 지장 없이 해결이 되는 체험을 수없이 하였다.

콜라·사이다 장사를 그만둔 뒤 부양 가족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찾고 있을 때, 최수영 전도사의 소개로 강남 영동에서 나가 고등학교 3학년생 10명 정도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은 학생 10명이 모두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30일씩 14번 금식기도를 하여 승리자가 되신 구세주 조희성님

그 소문이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소문을 듣고 재벌 자녀들의 부타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다. 돈은 달리는 대로 줄 테니 자기네 자녀들을 책임지고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러하여 남산초등학교 앞에 방을 얻었고, 읍지로 2가 2층에도 공부방을 마련하여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소문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학생들이 더

늘어나 충무로 3가 등 여러 곳에서 과외지도를 했다. 10의 10조를 하려는 불붙는 충성심이 하늘에 닿아 하는 일이 잘 되었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돈으로 중소기업까지 차리게 되었다.

잠 한숨 자지 않는 30일씩 금식기도를 하다

이 사람은 과거 성경을 보는 가운데 사람은 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일찍이 찾게 되었다고 앞에서 말했다. 기독교적 신앙을 하는 가운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뿔뿔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다"고 기록된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으며, 사람이 죄와 상관없이 다면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육심 자체가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육심이란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를 항상 버리라"고 기록이 되어있는 말씀을 보고, '울거나, 사람은 내만 버리고, 내만 없어진다면 죽을 수도 없으며, 현재 사람이 변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일찍이 발견했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비결, 나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골똘히 연구하였다. 그러나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 눈물로써 애원하며 기도를 하였다. 나로 하여금 나를 버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죄에 노예 된 인간으로서 너무 고통스럽고 막막하기만 할 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었

기 때문에 계속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내심을 달라고 애걸복걸 애원하는 기도를 하였다. 그러다 보니 나를 짓이기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밥 먹듯 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입안으로부터 뱃속까지 시원하게 생수 연결이 되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먹지 않아도 힘이 솟구치는 체험을 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며칠씩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는 금식 기도를 기피한 것만 있으면 했다. 어느 정도 그것이 익숙해지자 그 날짜를 점점 늘렸다. 그러다보니 30일씩 금식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예사로 30일씩 금식기도도 자신만만하게 하게 되었다. 흔히 일반 상식으로는 체질상 남자는 7일 간만 굶으면 죽게 되어 있고, 여자는 10일만 굶으면 죽게끔 인간의 체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10일씩 금식 기도를 해도 괜찮은 체험을 하게 되니까 자신이 불쌍한 것이다. 그러하여 상상하기도 힘든 30일씩 금식 기도를 해도 견디어내는 체험을 하였던 것이다.*